



코아로직 사장
황기수

한국 팹리스산업은 지난 몇 년간 해외 경쟁사들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왔다. 대표적인 국내 팹리스 기업 들로는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분야의 코아 로직, ISP분야의 엠텍비전, MP3 칩 분야 의 텔레칩스, LCD관련 분야의 TLI, 메모 리 관련분야의 EMLSI 등을 들 수 있다.

한국팹리스 산업이 나아갈 방향

한국에 있는 세계적인 휴대폰, 디지털 TV 및 휴대용 기기의 생산업체들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해 공급하는 산업 생태계 를 성공적으로 구성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한 국 팹리스 기업들이 구축한 이 산업 생태계는 고객의 요구 를 빠르게 파악하여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고 현장을 지원함 으로써 해외 팹리스들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었 다. 그러나 최근 한국 팹리스 업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 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국내의 팹리스 회사가 대응했던 대형 세트 제 조사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 해외업체들이 경쟁 제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IT제조, 세트산업 등의 대형 투자 산업이 세계의 제조공장을 자처하는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가 세트용 생산기지의 중국이전은 국내의 저가 부품의 수 요를 줄일 뿐만 아니라 중국·대만 팹리스가 한국 팹리스에 대해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의 팹리스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을 발굴하기 위하여 빠르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

첫째,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과 마케팅을 중 심으로 한 지식산업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아웃소싱은 기술력 이 약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제공자 및 전자기기 위탁생산 서비스(EMS: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제조업자 설계생산 (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업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신기술이 개발되고 시험되는 한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서비스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동 통신사 업자, 인터넷 포털업체, 연구기관 등을 고객으로 편입시키 는 노력을 해야 한다. ☐